



16면

우하람, 한국다이빙 역대 최고 성적

2021년 8월 4일 수요일 (음 6월 26일)

제283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주매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3일 기획재정부를 찾아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에 전북 신산업지도 구축 위한 동력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전북 신산업지도 구축 동력사업

내년 예산에 반영해달라”

우범기 정무부지사,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등 건의

전북도가 막바지 단계 예산심의가 진행 중인 기획재정부를 찾아가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산업, 전북형 뉴딜 등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을 주요 동력사업의 예산보증을 적극 요청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3일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임기근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주요 핵심축을 잇달아 만나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지역 조성', '풍력 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등 전북도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주요 동력사업의 정부예산안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우 부지사는 먼저, 전북의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산업 분야로 그 린뉴딜과 해상풍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풍력핵심 소재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비 68억 8,000만원 반영과 함께, 해양 무인자동화 기술 검증에 최적화된 새만금 내수면에 구축하는 '조형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비 34억원 반영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전북형 뉴딜사업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미래상용차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 상용차 자율협력주행 화물물류서비스 실증단지 조성' 사업 국비 64억원 반영과 정부 재생에너지 계획 실현을 위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 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 사업의 국비 165억 원 전액 반영을 강력 건의했다.

이외에도 새만금 잼버리 용지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상징성 있는 조형물 설치하여 새만금의 글로벌 도시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새만금 재생에너지 랜드마크 건립'에 국비 5억 원 반영을 건의하고, 전북 수산식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로 수산식품 R&D센터 중심의 스마트 가공공장 기반 구축을 위한 '새만금 스마트 수산식품 종합단지 조성' 사업의 국비 14억원 반영도 요구했다.

아울러, 군산 상생형 일자리의 성공적 추진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할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보드 개발을 위한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개발' 사업의 국비 증액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의 국비도 증액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이어 산업부와 해수부를 차례로 방문해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이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실득 활동도 병행했다.

우선 산업부에는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엔지니어링센터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철호 해수부 항만국장을 만나서는 '군산항 7부두 아적장 구축' 사업의 국비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과 '군산항 기본계획 변경' 등 주요 현안의 항만기본계획 반영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빨리진 기재부 심사 일정에 발맞춰 매주 자회부 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유호성 기자

‘딱걸렸네’... 방역수칙 위반 업소 적발

도 특사경 중심 합동 점검
5곳이 수칙 어긴채 영업
“강력한 행정처분 나설 것”

수도권에 4단계 거리두기 적용에도 코로나19 대유행의 불길기 잡히지 않고, 비수도권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내 일부 업소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 및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5개 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오후 10시 이후 집합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29일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거리, 주변이 모두 영업을 중단한 것처럼 보이던 중 한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일제히 들어닥쳐 업주로 보이는 한 명이 재빨리 계단을 통해 달아났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혔다.

현장 확인을 위해 업소의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순간 문이 굳게 닫혀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업주에게



지난달 29일 군산 나운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있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

문을 열고 하자 안에서 잠겼다는 통 핑계를 대며 특별사법경찰관과 20여 분간 대치했다.

더는 대치상황을 미룰 수 없어 소방관과 폭시 모를 충돌사태에 대비해 경찰관과 함께 출입문을 열기로 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단속반과 함께 들어갔다.

안에는 술 파티를 하던 손님들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상태였고, 반절 이상 남은 양주와 안주, 도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이 현장에 있었다.

또, 국가산업단지 주변 업소에는 마지 외국에 온 것처럼 외국인들로 가득 찬 거리에 버젓이 오후 10시 이후에 외국 현지 음식을 팔고 있었다.

한국말을 더듬거리며, 업주 사이

로 2개의 테이블에 음식을 먹으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러시아 국적 외국인 3명도 있었다.

당일 오후 11시경 인근의 단란주점 단속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남성들 5명이 맥주 30병 이상의 많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있다가 적발됐다.

도민의 대다수는 4차 대유행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영업하고 있으나, 일부 극소수의 몰지각한 영업주와 손님이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모른 채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

전북도청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일단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해 도민 생활 안전과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차단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가 발견될 시, 특별사법경찰과 ☎(280-1399) 또는 안전신문고 앱(www.safetymemo.go.kr)을 통해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성 기자

부안군, 15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부안군은 일주일간 일일평균 1.4명이나 연 이틀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매우 위중해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해 추진한다.

이는 지역사회로의 연쇄감염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주민 모두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득이하게 결정한 사항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행사, 집회는 50인 이상은 금지하며, 결혼

식장과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허용되고,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과 목욕장업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좌석 네칸 띄우기를 하고, 소규모 모임 행사 식사 숙박을 금지하며, 실외행사는 50인 미만으로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부안군 학원연합회에서는 학원과 교습소에 대하여 8일까지 임시 휴업하고 경로당 및 실내의 공공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이 중단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휴가철을 맞아 타지역 피서지 여행을 자제하거나 분산하여 실시하여 주시고, 백신접종 완료 후에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및 손소독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으며 유증상자와 접촉하거나 수도권 등 타지역을 방문한 시민들께서는 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달라”며 “군은 빈틈없는 방역상황 특별점검과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에 총력을 다해 빠른 시일내에 단계를 하향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풀치음 & 힐링이 있는 남원 여행
 남원의이름

자연산 허브빌리

북서어나무숲

숙박시설 에코로지

백두대간 트리아우스

| 숲에서 휴식 운봉 서어나무숲 | 허브향기 가득한 자연산허브빌리
 | 생태관광 숙박시설 에코로지 | 나무 위 숙소 백두대간 트리아우스 | 천혜의 절경 자연산벤스골계곡

남원시
www.namwon.go.kr